

3년차 맞은 전북 농촌유학 '내년엔 더 내실있게 추진'

도교육청 2024학년도 모집 결과 89명 신규 신청
농촌유학 모집 시기 1·2학기로 나눠 연 2회 모집
유학생 경비 부담 완화 지속...매일 총 50만원 지원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으로 늘려

전북 농촌유학이 3년차를 맞았다. 전북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전북 농촌유학 모집 결과 89명이 신규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37명, 경기 29명, 인천 6명 등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2명, 대전 2명 등 전국에서 신청하면서 전북 농촌유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기존 유학생 중 연장 신청을 한 48명을 포함해 총 137명이 신청했다. 이는 2022년 27명에서 5배 이상 증가

한 수치며, 농촌유학 운영학교도 2022년 4개 시·군 6개교에서 13개 시·군 31개교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농촌유학 모집 시기를 1학과 2학기로 나눠 연 2회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집기간이 아닌 시기에 전학 온 학생의 경우 '예비유학생'으로 지정해 다음 학기부터 농촌유학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농촌유학생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전북

교육청이 30만원,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가 20만원 등 총 50만원을 매월 체재비로 지원해 농촌유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학교당 1,000만원 지원하던 특색프로그램 운영비를 내년부터는 1,200만원으로 늘려 유학생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생태체험 교류학교 확대 운영, 캠퍼 투어 개최 등을 통해 농촌 환경을 직접 경험하도록 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기존 농촌유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는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펼치고자 한다"면서 "지자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거주시설을 확보하고, 또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북 농촌유학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 학생의회는 2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2023년 제1기 전북학생의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전북학생의회 의정활동 돌아보다

제1기 학생의회 성과보고회... 내년 운영 방향 모색도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권 보장 등 8개 안건 제안

전북도교육청 학생의회(학생회장 최현호)는 2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2023년 제1기 전북학생의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성과보고회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한정수 교육위원 및 14개 지역학생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전북학생의회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2024년 전북학생의회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북학생의회는

임시회(3회)·분회(2회) 등을 거치며 8개 안건을 제안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권 보장 △학생회장단 선거 공약 이행비 지원 △학생 등·학교 교통비 지원 △선거 나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참정권 교육 △학생 흡연을 저하를 위한 금연 지원 정책 △학생자치 연합 워크숍 운영 △교내 아이조명(가로등) 설치 지원 등이 있다. 특히 14개 시군 지역 학생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등을 공유하고, 학생의원의 역할과

교육청에 바라는 점 등을 건의했다. 최현호 의장은 "지난 1년간 전북학생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학생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2기 학생의원들도 학생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년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 학생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 여러분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통해 전북교육에 기여해왔다"면서 "전북교육청은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생중심 대학 꼭 실현하길 바라"

호남문화재단, 전북대에 발전기금 2000만원 기탁

JTV전주방송이 운영하고 있는 (재) 호남문화재단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새달라며 전북대학교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

27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호남문화재단 이사인 한명규 JTV전주방송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호남문화재단의 발전기금은 대학 경쟁력 향상 기금으로 지정돼 전북대 기계공학과와 신소재공학부(금속시스템공학전공)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지난 26일 오후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호남문화재단 이사인 한명규 JTV전주방송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이 열렸다.

한명규 대표는 "글로벌대학으로 도약하는 전북대학교의 우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자 기부에 동참했다"며 "전북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학생 중심' 대학을 꼭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설립된 호남문화재단은 그동안 지역사회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장학사업 등에 모두 6억4,700만원을 지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2023 전북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성료

농악부터 퍼포먼스까지... 관광객들 '들쭉'

4월부터 11월까지
전주·익산 등에서
예술인 196명 참여
전북만의 퍼레이드 선보여



'2023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5월 13일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개막식에서 펼쳐진 통합퍼레이드.

'2023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이하 노상놀이)' 사업에 37만여 명의 관람객이 공연을 즐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노상놀이는 전북도내 대표 관광지에서 지역 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퍼레이드형 공연을 상설 운영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27일 전북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4월부터 11월까지 주말 낮 시간대에 전주, 익산, 남원, 고창, 부안에서 농악, 취타대, 전통연희, 거리극 퍼포먼스 등 예술인 196명이 참여해 전북만의 다양한 거리극 퍼레이드를 선보였다. 특히 5월 13일에는 전라북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개막식에서 2만5,000여명이 관람한 가운데 5개 시·군이 연합한 통합퍼레이드를 선보여 전북 예술콘텐츠의 위상을

높이 드높이 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 시·군과 수행단체를 선정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지원했다. 선정된 시·군(사업수행주체)은 △전주시(함국마을), △익산시(국악 예술인 소리피), △남원시(협동조합 지리산권마실), △고창군(고창농악보존회), △부안군(포스댄스컴퍼니) 등 총 5곳이다.

재단 이경운 대표이사는 "노상놀이는 지역 예술인의 화합을 통해 전북만이 가진 특색 있는 예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공연"이라며 "내년에도 전북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제작 발굴해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30명 전원 합격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는 제51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LINC3.0 치과디지털기술전문반 학생 30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는 올해 전체 5,243명 응시자 중 4,613명이 합격해 평균 합격률 88.0%로 나타났다. 김미정 치위생과 LINC3.0 치과디지털기술전문반 지도교수는 "국가고시의 높은 합격 비율은 최신 교육과정 운영과 현장 중심 실무 교육, 학과 교수님들의 열정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전했다.

LINC3.0 치과디지털기술전문반 안서현 학생은 "우리 대학 치위생과는 국가고시 특별반 운영과 교수님들의 맞춤형 밀착 지도 그리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원 합격이라는 영예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100% 합격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치위생학과가 '제51회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인 20학번 학생들 전원이 100%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호원대 치위생학과 4학년(20학번) 응시생 전원이 26일 발표된 합격자 명단에 올라 최종 합격 100%를 기록했다.

전북권에서 유일한 4년제 대학인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는 졸업자들의 전문 취업으로 입학 후 졸업까지 학생들의 미래와 진로를 함께하며 4차 산업시대의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뿐만 아니라 창의 및 혁신 역량을 겸비한 차세대 치과위생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혜원 치위생학과장은 "교수들의 지도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권산=김관곤 기자

공유화음실, 올 상반기 정기대관 모집

전주문화재단서 운영... 내년 1월 9일까지 신청접수

전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유화음실이 내년 1월 9일까지 2024년 상반기 정기대관 접수에 들어갔다. 전주 원도심 동문길 60에 위치한 공유화음실은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통근거리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94.9㎡(28.8평) 규모로 음향시설과 강 의용 테이블, 의자 등을 갖추고 있어 소규모 전시부터 교육 세미나까지 다 목적 활용이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번 상반기 정기대관은 전주 관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대관료는 무이다. 다만, 정치성, 종교성, 홍보성 행사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성 기자

대관은 주말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하며, 대관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운영된다. 당일 대관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는 전주문화재단 누리집(<https://jcf.or.kr>)을 참고해 대관신청서류를 내려 받은 후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전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e메일(perih21@jcf.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대관 심의 후 2024년 1월 16일 이후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공고를 참조하거나 생활문화팀(063-231-2015)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베를리오즈 연가곡, 원종신 회화와 만나다

메조소프라노 변지현 리사이틀, 30일 전주교대서

메조소프라노 변지현(사진)이 오는 30일 전주교육대학교 음악관 3층 연주홀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베를리오즈의 탄생 220주년을 기념해 베를리오즈의 대표적인 연가곡 여름밤 LES NUITS D'ETE'을 국내 유명 화가 원종신의 SUMMERTIME EPISODE(부제:Midsummer Night's Dreams)전의 회화와 함께 리사이틀 형식으로 전주 연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메조소프라노 변지현의 이번 리사이틀은 피아니스트 김윤미의 반주로 '여름밤'이라는 공통된 모티프를 통해 원종신의 특별한 회화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매순간 관객과 소통하는 연주를 기획하고자 하는 그녀는 리사이틀 안에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베를리오즈 SALON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치해 데스크에서 사전 배포된 스티커를 통해 관객을 SALON에 초대된 MADAME과 MONSIEUR로 각각 설정하고 관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한다. 작곡가 베를리오즈와 그가 살았던 19세기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문학을 메조소프라노의 변지현의 다채로운 해석과 음악으로 함께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연주회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2023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메조소프라노 변지현은 전주 예술병



원에서 태어나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 후 현재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바로크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따뜻하고 풍부한 음색과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으로 오페라, 가극, 오라토리오(종교음악) 및 국내 모든 성악 장르에서 인정받으며 울라문더로 활약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변지현은 한국음악가협회 회원으로 현재 전주교육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현재 아트리노 소속 전속 솔리스트로 독창회와 동시에 내년 예정된 2024년 한중교류음악회와 페르플레지의 Stabat Mater 전국연주를 준비 중이다. /장은성 기자